

# <Di(e)ary>

[부제: 인과응보]

**시놉시스:** 각종 팀플과 인간관계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던 주인공은 아침에 학교 가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줍게 된다.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둘러보다가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가방에 일기장을 넣고 급하게 학교로 향한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책을 꺼내려는데 가방에 넣어 두었던 일기장을 보게 된다. 그 일기장 첫 장에 쓰인 주의 사항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작은 소원을 적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적었던 소원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소원을 더 적게 된다. 하지만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말처럼 세 가지 소원(복수)을 적은 주인공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끝을 보게 된다.

주인공: 이지안 (재수 없는 날을 보낸 주인공)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김서연

공간: 학교 캠퍼스 내부

시간: 아침부터 저녁

## S#1. 지안의 집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지안.

팀플 때문에 같은 팀의 선배와 통화 중인 지안.

지안: (목소리는 좋지만, 기분 안 좋은 얼굴로) 네, 선배님. 오늘까지 자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노트에 선배의 욕을 적으면서 듣고 있는 지안

선배: (전화 속 목소리) 어... 미안. 내가 요즘 바빠서 준비를 못 했어.

혹시 네가 대신해줄 수 있을까? 내가 과제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지안아, 부탁할게.

지안: (당황한 목소리로) 어! 선배님!!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선배.

지안: (짜증 나고 화난 목소리로) 아씨, 이거 완전 개새끼네 진짜.

화를 삭이던 지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침대에 가서 누운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지안.  
한참 동안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놀란 듯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지안

지안: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뭐야?? 존나 어이없네!

지안의 핸드폰 클로즈업 (서연이 지안의 짝남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인스타 게시물)

지안: (화난 목소리로) 아씨, 애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쁜 년.

핸드폰을 보던 지안은 이내 핸드폰을 침대에 던진다. (화면전환)

## S#2. 학교 캠퍼스 입구 - 금요일 아침

아침 일찍 1교시 수업을 들으려고 집을 나서는 이지안.  
이번 주 내내 팀플과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지안은 학교 가기 싫은  
얼굴을 하고 학교로 들어선다. (느린 발걸음, 가기 싫은 표정)  
이때 지안은 길에 떨어져 있는 오래된 일기장을 보게 된다.

지안: (일기장을 주워들면서) 앵? 엄청 낡고 오래돼 보이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한참 일기장을 둘러보던 지안은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지안.

지안: (손목시계를 확인하면서) 헉!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씨... 망했다.

오래된 일기장을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강의실로 향하는 지안.  
(지안의 뒷모습을 폴샷으로 촬영)

### S#3. 학교 도서관 - 점심

강의를 다 듣고 도서관으로 가는 지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책을 꺼내던 도중 아침에 주웠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지안: (잠깐 멈칫하면서) 아! 맞다! 아까 아침에 일기장 주웠었지….

일기장을 펼쳐보는 지안

지안: (일기장의 첫 장을 보면서) 주의 사항? 일기장을 쓰는데 무슨 주의 사항이 필요해?

일기장에는 ‘이 일기장에 적은 모든 것은 이뤄진다.’라고 적혀있다.

밑에 작은 글씨로 ‘한 번 적은 건 지운다 해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적혀있었지만, 지안은 이 글씨를 보고도 무시하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일기장에 어떤 소원을 적는다.

지안: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게 될까? 그래도 밀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적어봐야지.

### S#4. 도서관 근처 (실외)

점심을 먹으려고 잠깐 도서관을 나온 지안.

그때 같이 팀플을 했던 선배님이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지안.

지안: (약간 싫은 표정으로 선배님을 보면서) 아… 제발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선배님: (반가운 듯 지안을 보면서) 어! 지안아! 팀플 끝나고 오랜만이네!

지안을 보면서 반가운 듯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선배님은 갑자기 발목이 꺾이면서 넘어진다.

선배님: (고통스러워하면서) 아!!! 아씨!!

지안: (웃음이 나올 뻔하지만 참으면서) 어…! 선배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

## S#5. 도서관 (실내)

도서관으로 들어온 지안.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쳐보는 지안.

지안: (웃으면서) 이거 진짜였어? 대박이네!

첫 번째 소원을 적은 일기장을 웃으면서 보는 지안.

지안: (약간 사악한 표정으로) 아...! 이거 찐 이네. 그냥 우연인가?  
한 번 더 적어보면 알겠지.

일기장에 두 번째 소원을 적는 지안.

지안: (흥분한 목소리로) 내가 김서영 이 새끼만 생각하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사악한 목소리로) 너 잘 걸렸다.

평소에 지안과 사이가 안 좋았던 김서영에 대한 복수를 위해 두 번째 소원을 일기장에 적는다.

## S#6. 학교 강의실 건물 (실내)

두 번째 소원을 적은 지안은 짐을 도서관에 두고 오후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한다. 강의실로 가던 중 서영과 마주치는 지안. (다이어리 방치)

지안: (썩은 표정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 아씨... 재수 없게

서영: (지안과 마찬가지로 썩은 표정으로) 아씨...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지안과 서영

지안: (여전히 썩은 표정으로) 아... 학교를 바꾸든가 전과를 하든가 해야지.  
계속 마주치네! 재수 없게.

서영: (지안과 똑같은 표정으로) 내가 더 재수 없거든. 존나 어이없네.

지안: (비웃으면서) 됐다. 몸조심하고 잘 가.

서영: (어이없는 표정으로) 뭐래.

잠시 후, 서영은 계단(낮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지안은 굴러떨어진 서영을 우연히 보게 된다.

지안: (깜짝 놀라면서) 헉! 이번에도 찐 이네!! 대박이다.

이내 도서관 쪽으로 뛰어가는 지안.

### S#7. 도서관 (실내) - 시점샷 (누군가)

도서관에 도착한 지안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두 번째 소원을 적었던 내용을 보면서 웃는다. (두 번째 소원 내용은 '김서영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적혀있다 - 클로즈업)

지안: (웃으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이거 찐 이네.  
(골똘히 생각하면서) 또 누가 날 괴롭혔었지?

세 번째 소원을 적으려고 다음 장을 넘기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지안.

지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뭐야!! 누가 여기에다 이런 걸 적어놨어?  
이거 어떡하지? (잠깐 당황해하다가) 빨리 지워야지.

남은 일기장 전체에 지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저주를 본 지안은 이내 모든 내용을 지운다. (저주의 내용 '이지안 죽어'라고 적혀있다.)

지안: (떨리는 목소리로) 다 지웠으니까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 해.

불안하지만, 저주의 내용을 모두 지웠다는 안도감을 안고 도서관을 빠져나오는 지안.

지안: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겠지? 없어야 해.

(퍽 소리가 선행하고 지안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온다.)

발목이 꺾여 넘어지는데 계단이 옆에 있어서 굴러떨어진다. (죽는 장면)

지안이 들고 있던 일기장이 떨어지면서 일기장의 첫 장에 적혀있는 주의 사항이 클로즈업 (일기장의 주의 사항: 한 번 적은 내용은 지운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모여든 사람 중 한 명이 일기장을 가져가면서 끝난다.